

력사의 땅에 울려 퍼진 멸적의 총성

무송현성전투 승리 80돐에 즈음하여

오늘은 무송현성전투승리기념일입니다.

멸적의 총성이 울리며 그때로부터 어언 80돐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그날은 메아리 친 승리의 합성을 오늘도 총성의 2000일전투에 대한 하늘은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는 곳이었다.

이 성시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생의 지침으로 되는 아버님의 유언을 담으시였다.

아직은 민족수난의 비운이 절어만 가던 주체 15(1926)년 8월 5일 김혁지선생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에게 나를 이롭게 모시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의 물려온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빠져나가고 물이 조개지는 한이 있다면 나를 반드시 찾으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 부대들에 통소리와 함께 적의 기관총을 펼쳐졌다.

두도총화강을 끼고 멀처진 무송시가의 옛 모습, 무송읍 앞거리, 무송제 1초학교.

이 제치의 옛 웃속과 축축에는 일출수 없는 무송이라고 쓴 글과 무송에는 꿈많은 소년지들이 흘러간 고장, 백두산으로 나가면 길에 이 성시에서도 풍소리를 들었다는 글이 새겨져있다.

백두산으로 진출하시던 길에 무송에서 윤린 총소리, 그것이 유명한 무송현성전투이다.

위대한 맹도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선군으로 조국을 해방하라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부강발전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시었습니다.』

더없이 귀중한 사적으로 우리의 혁명사를 당시하고 있는 무송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0년대 후반기에는 폭스 조직진행하신 무송현성전투에 대한 풍물의 사적지도 척자의 무네는 또다시 무송에 펼쳐졌다.

우리는 수십년전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로 주억의 노를 저어간다.

주체 25(1936)년 이론불부리 어려움에서 적의 무력을 격파하고 인민들에게 혁명의 신심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8월에는 마침내 무송현 소재지이며 백두산연대에서 적의 제일 큰 『도토리』를 무송현성전투에 대한 전공작적을 펼쳐하였다.

이즈음 조선인민혁명군의 손수적인 타격을 받은 일제침략자는 무송연대에 병력을 투입하면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대응을 향해 힘을 쏟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이미 한 쪽으로 예리하게 퍼트려고 무송현성의 적을 치기로 결심하였다.

무송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시절의 추억이

짓든 고장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천지길을 거쳐 무송평야 이르신 그때로부터

지금 끝이 고장은 우리 수령님과

망명대첩명일 가을에 대한 하늘은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는 곳이었다.

이 성시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생의 지침으로 되는 아버님의 유언을 담으시였다.

아직은 민족수난의 비운이 절어만

가던 주체 15(1926)년 8월 5일 김혁지선생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에게 나를 이롭게 모시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의 물

려온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빠져나가고 물이 조개지는 한이 있다면

라도 나를 반드시 찾으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 부대들에

통소리와 함께 적의 기관총을 펼쳐졌다.

전교한 성벽에 의지하여 발악하면

작들은 유인전술을

세서 적들을 선행으로 풀어내다 소

멸하여 아겠다고 결심하였다. 마침

주검만 남기고 풀려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빠져나온 적들은 충돌을 멈

주고 산기슭에 들어 충원부대가 오

기기를 기다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체없이

반동적명령을 내려시였다.

유상한 나팔소리와 함께 풀격으로

이전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적

들을 타진하는데 들어섰다.

임계의 『경에부대』는 동산풀짜기

에서 전멸을 면할수 없었다.

이 사례는 그날 오전 중으로 관동

군수부에 보고되었다. 신경비행장

에서는 무송주군을 지원하고 특

란과 활약을 가득 실은 군용기들이

몰려왔다. 통화, 원인, 사령과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투를 벌여온

이들은 유인전술을 걸려드는 줄도 모

랐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적의 한 부대

는 철수하는 이군을 우회하여 동산

기술의 잘부족으로 기어들었다. 조

선인민혁명군은 광복으로 공격하여

는 능들의 잔해였다.

사례는 매우 위험하였다.

바로 이때였다. 짧은 목숨을 끌었다는

는 흥소리와 함께 적의 기관총을 펼

쳤다.

작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

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장수들은 철수하는 데로 풀격으로 풀려나온 적들을 향해 헛되이 쏘았다.

현대판 〈을사오적〉을 단호히 징벌해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을사오적》은 대를 두고 저주를 받는 데 국민적의 가장 추악한 대명사이다.

지금 우리 민족은 《싸드》 배비소동과 일제의 성노예범죄자지 회화동으로 내외의 경악을 자아내는 박근혜폐당의 천미친일에 국행위에서 지난 새기초 일제의 더러운 잊갈이가 되며 나와 민족을 괴롭히는 《을사오적》의 망령을 보고 있다. 사대국과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남조선을 외세의 대결장으로 성서버치고 인민들에게 서우과 세난을 들씌우는 박근혜역폐당은 민족이 현대판 《을사오적》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박근혜폐당이 미국의 식민지 청평노복이 되어 《싸드》 배비를 결정한 것은 외세에게 나라를 팔이려는 《을사오적》의 죄악에 조금도 빠지지 않는 특대형 미국 범죄이다.

역직들이 내외의 저주와 규탄을 무릅쓰고 강행하는 《싸드》 배비소동으로 지금 남조선은 대국들의 침에 한 정치, 군사, 외교적 대결의 한복판에 놓였고 있다.

그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이 친성판우에 놓이게 되었다. 벌써부터 《싸드》를 앞세운 미 국의 제2전략과 그에 반발하는 주변대국들의 움직임이 남조선을 무대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싸드》 배비야말로 남조선을 대국들의 대결장으로 만들고 외세의 손에 거래의 운명이 한도 급락하도록 내맡기는 용납 못할 역적행위이다. 침략적인 외세의 려익을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려익을

서슴없이 팔아먹는 박근혜폐당이야말로 《을사오적》도 날을 짚힐 민족의 재앙 거리가 틀림없다. 남조선인민들이 폐피보수집현세력의 망통을 《현대판 〈을사오적〉》의 죄악, 《민중안전에 전쟁성이 상의 위험을 가져온 대재앙》 등으로 단죄하려는 것은 그때 몇이었다.

그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떠져나오고 있는데도 박근혜폐당은 표를 한 자책감도 없이 얼마간 일본군성노폐피자들의 상처에 제를 뿐만 헛죽까지 떠운하며 송상한 화내를 내보기 군부폐지들을 동원하여 해외한 《황위구매》 놀라까지 벌리며 성난 민심을 조작해낸 것이다.

친일주구들의 입에 성노에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걸레짝을 풀어온 일본군동들은 지금 《북에 걸렸던 가시가 죽 내려갔다》 고 폐제를 불러들이었다.

이미 한 현실을 두고 한 외국인사까지도 《이처럼 전면적인 항복, 이보다 더 한 주권포기행위는 상상할 수 없다. 일본은 전쟁범죄를 추궁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고 개한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폐당이 그 무슨 《국익》이니, 《폐지자들의 행에 완증회복, 마음의 상처치유》니 하는 얼빠진 살피로 민심을 우롱하고 민족의 자존심에 훔친지를 해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역적법인가.

그러나 박근혜는 사무라이 후에들의 그 만고죄악을 몇 줄의 돈문 밟고 떠나온 역사에는 《을사오적》을 끝내고 있다. 지난해 말 폐피지이가 일본당국과 성노에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벌여놓고 글유적인 《합의》를 꾸며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다. 이로써 백국노불은 일본군성노에 범죄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부마시켜버렸다.

그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떠져나오고 있는데도 박근혜폐당은 표를 한 자책감도 없이 얼마간 일본군성노폐피자들의 상처에 제를 뿐만 헛죽까지 떠운이며 송상한 화내를 내보기 군부폐지들을 동원하여 해외한 《황위구매》 놀라까지 벌리며 성난 민심을 조작해낸 것이다.

친일주구들의 입에 성노에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걸레짝을 풀어온 일본군동들은 지금 《북에 걸렸던 가시가 죽 내려갔다》 고 폐제를 불러들이었다.

이미 한 현실을 두고 한 외국인사까지도 《이처럼 전면적인 항복, 이보다 더 한 주권포기행위는 상상할 수 없다. 일본은 전쟁범죄를 추궁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고 개한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폐당이 그 무슨 《국익》이니, 《폐지자들의 행에 완증회복, 마음의 상처치유》니 하는 얼빠진 살피로 민심을 우롱하고 민족의 자존심에 훔친지를 해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역적법인가.

그러나 박근혜는 사무라이 후에들의 그 만고죄악을 몇 줄의 돈문 밟고 떠나온 역사에는 《을사오적》을 끝내고 있다. 지난해 말 폐피지이가 일본당국과 성노에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벌여놓고 글유적인 《합의》를 꾸며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연이다.

역대로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을 반역해나선 폐피역적배들은 예외없이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서승길을 갔다.

더우기 《유신》 독재자의 종말은 그 애말로 비극적이었다. 《유신》 독재자 가 《승용통령》의 개품을 꾸고 과거 일제의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손해배상을 받았을 권리포기》 한다는 내용의 매국적인 남조선 일본 《협정》까지 제정하면서 사대대국에 유통을 넓혔지만 종당에 역도에 차운 것은 가련한 비명횡사의 운명이었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박근혜도 그가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 독재자가 제정한 남조선일본 《협정》을 그대로 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박근혜도 운명에 애비의 운명과 결코 멀리 떨어질 수 없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더니 미국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은 그대로 일본당국과 약탈하여 꾸며낸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협정》과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유신》을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펴놓았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무모한 군사적 망동

중국과 르씨아의 신문, 통신은 비록 한 언론들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 배치를 비난하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 언론들을 보면 미국이 남조선에 일정과 퀘리언도 「싸드」를 배치하며 한다는 남조선에 대한 「싸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무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이었다는 것, 또 그것은 아시아에 평양 지역의 주요 대국들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위 체계 구축과 미사일 조선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10·211·212·213·214·215·216·217·218·219·210·211·212·213·214·215·216·217·218·219·220·221·222·223·224·225·226·227·228·229·220·221·222·223·224·225·226·227·228·229·230·231·232·233·234·235·236·237·238·239·230·231·232·233·234·235·236·237·238·239·240·241·242·243·244·245·246·247·248·249·240·241·242·243·244·245·246·247·248·249·250·251·252·253·254·255·256·257·258·259·250·251·252·253·254·255·256·257·258·25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271·272·273·274·275·276·277·278·279·270·271·272·273·274·275·276·277·278·279·280·281·282·283·284·285·286·287·288·289·280·281·282·283·284·285·286·287·288·289·290·291·292·293·294·295·296·297·298·299·290·291·292·293·294·295·296·297·298·299·300·301·302·303·304·305·306·307·308·309·300·301·302·303·304·305·306·307·308·309·310·311·312·313·314·315·316·317·318·319·310·311·312·313·314·315·316·317·318·319·320·321·322·323·324·325·326·327·328·329·320·321·322·323·324·325·326·327·328·329·330·331·332·333·334·335·336·337·338·339·330·331·332·333·334·335·336·337·338·339·340·341·342·343·344·345·346·347·348·349·340·341·342·343·344·345·346·347·348·349·350·351·352·353·354·355·356·357·358·359·350·351·352·353·354·355·356·357·358·359·360·361·362·363·364·365·366·367·368·369·360·361·362·363·364·365·366·367·368·369·370·371·372·373·374·375·376·377·378·379·370·371·372·373·374·375·376·377·378·379·380·381·382·383·384·385·386·387·388·389·380·381·382·383·384·385·386·387·388·389·390·391·392·393·394·395·396·397·398·399·390·391·392·393·394·395·396·397·398·399·400·401·402·403·404·405·406·407·408·409·400·401·402·403·404·405·406·407·408·409·410·411·412·413·414·415·416·417·418·419·410·411·412·413·414·415·416·417·418·419·420·421·422·423·424·425·426·427·428·429·420·421·422·423·424·425·426·427·428·429·430·431·432·433·434·435·436·437·438·439·430·431·432·433·434·435·436·437·438·439·440·441·442·443·444·445·446·447·448·449·440·441·442·443·444·445·446·447·448·449·450·451·452·453·454·455·456·457·458·459·450·451·452·453·454·455·456·457·458·459·460·461·462·463·464·465·466·467·468·469·460·461·462·463·464·465·466·467·468·469·470·471·472·473·474·475·476·477·478·479·470·471·472·473·474·475·476·477·478·479·480·481·482·483·484·485·486·487·488·489·480·481·482·483·484·485·486·487·488·489·490·491·492·493·494·495·496·497·498·499·490·491·492·493·494·495·496·497·498·499·500·501·502·503·504·505·506·507·508·509·500·501·502·503·504·505·506·507·508·509·510·511·512·513·514·515·516·517·518·519·510·511·512·513·514·515·516·517·518·519·520·521·522·523·524·525·526·527·528·529·520·521·522·523·524·525·526·527·528·529·530·531·532·533·534·535·536·537·538·539·530·531·532·533·534·535·536·537·538·539·540·541·542·543·544·545·546·547·548·549·540·541·542·543·544·545·546·547·548·549·550·551·552·553·554·555·556·557·558·559·550·551·552·553·554·555·556·557·558·559·560·561·562·563·564·565·566·567·568·569·560·561·562·563·564·565·566·567·568·569·570·571·572·573·574·575·576·577·578·579·570·571·572·573·574·575·576·577·578·579·580·581·582·583·584·585·586·587·588·589·580·581·582·583·584·585·586·587·588·589·590·591·592·593·594·595·596·597·598·599·590·591·592·593·594·595·596·597·598·599·600·601·602·603·604·605·606·607·608·609·600·601·602·603·604·605·606·607·608·609·610·611·612·613·614·615·616·617·618·619·610·611·612·613·614·615·616·617·618·619·620·621·622·623·624·625·626·627·628·629·620·621·622·623·624·625·626·627·628·629·630·631·632·633·634·635·636·637·638·639·630·631·632·633·634·635·636·637·638·639·640·641·642·643·644·645·646·647·648·649·640·641·642·643·644·645·646·647·648·649·650·651·652·653·654·655·656·657·658·659·650·651·652·653·654·655·656·657·658·659·660·661·662·663·664·665·666·667·668·669·660·661·662·663·664·665·666·667·668·669·670·671·672·673·674·675·676·677·678·679·670·671·672·673·674·675·676·677·678·679·680·681·682·683·684·685·686·687·688·689·680·681·682·683·684·685·686·687·688·689·690·691·692·693·694·695·696·697·698·699·690·691·692·693·694·695·696·697·698·699·700·701·702·703·704·705·706·707·708·709·700·701·702·703·704·705·706·707·708·709·710·711·712·713·714·715·716·717·718·719·710·711·712·713·714·715·716·717·718·719·720·721·722·723·724·725·726·727·728·729·720·721·722·723·724·725·726·727·728·729·730·731·732·733·734·735·736·737·738·739·730·731·732·733·734·735·736·737·738·739·740·741·742·743·744·745·746·747·748·749·740·741·742·743·744·745·746·747·748·749·750·751·752·753·754·755·756·757·758·759·750·751·752·753·754·755·756·757·758·759·760·761·762·763·764·765·766·767·768·769·760·761·762·763·764·765·766·767·768·769·770·771·772·773·774·775·776·777·778·779·770·771·772·773·774·775·776·777·778·779·780·781·782·783·784·785·786·787·788·789·780·781·782·783·784·785·786·787·788·789·790·791·792·793·794·795·796·797·798·799·790·791·792·793·794·795·796·797·798·799·800·801·802·803·804·805·806·807·808·809·800·801·802·803·804·805·806·807·808·809·810·811·812·813·814·815·816·817·818·819·810·811·812·813·814·815·816·817·818·819·820·821·822·823·824·825·826·827·828·829·820·821·822·823·824·825·826·827·828·829·830·831·832·833·834·835·836·837·838·839·830·831·832·833·834·835·836·837·838·839·840·841·842·843·844·845·846·847·848·849·840·841·842·843·844·845·846·847·848·849·850·851·852·853·854·855·856·857·858·859·850·851·852·853·854·855·856·857·858·859·860·861·862·863·864·865·866·867·868·869·860·861·862·863·864·865·866·867·868·869·870·871·872·873·874·875·876·877·878·879·870·871·872·873·874·875·876·877·878·879·880·881·882·883·884·885·886·887·888·889·880·881·882·883·884·885·886·887·888·889·890·891·892·893·894·895·896·897·898·899·890·891·892·893·894·895·896·897·898·899·900·901·902·903·904·905·906·907·908·909·900·901·902·903·904·905·906·907·908·909·910·911·912·913·914·915·916·917·918·919·910·911·912·913·914·915·916·917·918·919·920·921·922·923·924·925·926·927·928·929·920·921·922·923·924·925·926·927·928·929·930·931·932·933·934·935·936·937·938·939·930·931·932·933·934·935·936·937·938·939·940·941·942·943·944·945·946·947·948·949·940·941·942·943·944·945·946·947·948·949·950·951·952·953·954·955·956·957·958·959·950·951·952·953·954·955·956·957·958·959·960·961·962·963·964·965·966·967·968·969·960·961·962·963·964·965·966·967·968·969·970·971·972·973·